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 석사 학위논문

F.P. Schubert의 두 개의 가곡

(Goeth의 시: Op.14, Op.31)과

F. Liszt의 네 개의 가곡

(Hugo의 시: Op.276, Op.284, Op.282, Op.283)

에 대한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성악전공

강수연



F.P. Schubert의 두 개의 가곡  
(Goeth의 시: Op.14, Op.31)과  
F. Liszt의 네 개의 가곡  
(Hugo의 시: Op.276, Op.284, Op.282,  
Op.283)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미 혜  
이 논문을 강수연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성악전공  
강 수 연

강수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박 미 자	(인)
부 위 원 장	윤 태 현	(인)
위 원	박 미 혜	(인)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 중 요한 볼프강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시에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가 곡을 붙인 가곡 Suleika I, Suleika II 와 빅토르 위고(Victor Hugo) 시에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가 곡을 붙인 여섯 개의 가곡 중 네 개의 가곡 “Comment, disaient-ils”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S’il est un charmant gazon” (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Oh! quand je dors” (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Enfant, si j’étais roi” (내가 만약 왕이라면)에 대해 각 곡의 이론적 배경과 곡의 분석을 통하여 작품의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F.P. Schubert는 31세의 짧은 생애 동안 많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이다. 슈베르트는 괴테와 하이네 같은 낭만주의 서정시에 매료되어 10대 후반부터 많은 곡을 작곡하였는데 특히 그는 괴테를 존경하여 57편이나 되는 괴테의 시에 곡을 붙였다. 슈베르트의 Suleika I 과 Suleika II는 괴테가 자신의 연인 마리안네 폰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와 죽을 때까지 주고받은 서신을 바탕으로 엮어진 「서동시집」 중 제 8편 <줄라이카의 서>의 두 편의 시로 작곡되었다. 이 두 곡은 연인을 만나러 가는 설렘과 연인과 헤어지고 돌아가는 이별의 아픔을 ‘바람’이라는 매개를 등장시켜 화자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확장된 피아노 반주의 역할과 아름다운 선율, 시의 구조에 따른 곡의 형식, 빠르기의 배열, 반주 음형, 조성, 다양한 화성을 사용하여 시 속에 담긴 극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음악으로 탁월하게 그려내었다.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인 F. Liszt는 근대 피아노 기법의 창시자이자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400여곡의 피아노곡을 작곡하였고 관현악이나 오페라 같은 대규모의 음악을 피아노로 편곡하였으며 여러 나라

의 언어를 사용하여 80여 곡에 달하는 가곡을 작곡하였다. 빅토르 위고의 시에 곡을 붙인 여섯 개의 가곡 중 네 개의 가곡 “Comment, disaient-ils”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S’il est un charmant gazon” (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Oh! quand je dors” (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Enfant, si j’étais roi” (내가 만약 왕이라면)는 네 곡 모두 프랑스 시어를 사용함으로 각 곡에 통일성을 부여하였고 ‘사랑’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가사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피아노 반주부의 유려한 선율과 빠르기와 리듬, 조성, 화성의 변화를 통해 리스트의 가곡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슈베르트, 리스트, 괴테, 서동시집, 빅토르 위고,  
낭만주의 예술가곡**

**학번 : 2020-21033**

# 목 차

I. 서론 .....	1
II. 본론 .....	3
1.1 Goethe 시에 의한 Franz Peter Schubert의 Suleika I, II 연구	
1) Franz Peter Schubert 의 생애와 가곡의 특징 .....	3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의 생애와 작품 .....	4
3) Johann Wolfgang von Goethe 「서동시집」의 특징 .....	7
1.2 Franz Peter Schubert 의 가곡 분석	
1) Suleika I .....	11
2) Suleika II .....	23
2.1 Hugo 시에 의한 Franz Liszt 의 여섯 가곡 중 네 개의 가곡 연구	
1) Franz Liszt 의 생애와 가곡의 특징 .....	34
2) Victor Hugo 의 생애와 작품의 특징 .....	36
2.2 Franz Liszt 의 네 개의 가곡 분석	
1) Commet, disaient-ils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	38
2) S’il est un charmant gazon (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	46
3) Oh! quand je dors (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	51
4) Enfant, si j’étais roi (내가 만약 왕이라면) .....	58



Ⅲ. 결론 .....	63
참고문헌 .....	66
Abstract .....	68

## 악보 목차

<악보 1> 슈베르트, Suleika I, 1-5마디 .....	14
<악보 2> 슈베르트, Suleika I, 6-13마디 .....	15
<악보 3> 슈베르트, Suleika I, 14-22마디 .....	16
<악보 4> 슈베르트, Suleika I, 23-26마디 .....	16
<악보 5> 슈베르트, Suleika I, 31-42마디 .....	17
<악보 6> 슈베르트, Suleika I, 60-71마디 .....	18
<악보 7> 슈베르트, Suleika I, 89-100마디 .....	20
<악보 8> 슈베르트, Suleika I, 109-120마디 .....	22
<악보 9> 슈베르트, Suleika II, 1-17마디 .....	26
<악보 10> 슈베르트, Suleika II, 18-29마디 .....	27
<악보 11> 슈베르트, Suleika II, 36-51마디 .....	28
<악보 12> 슈베르트, Suleika II, 96-117마디 .....	29
<악보 13> 슈베르트, Suleika II, 129-135마디. ....	30
<악보 14> 슈베르트, Suleika II, 152-162마디 .....	31
<악보 15> 슈베르트, Suleika II, 171-178마디 .....	32
<악보 16> 슈베르트, Suleika II, 179-186마디 .....	33
<악보 17>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1-15마디 .....	40
<악보 18>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16-23마디 .....	41
<악보 19>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24-31마디 .....	42
<악보 20>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32-46마디 .....	43
<악보 21>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54=60마디 .....	44
<악보 22>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68-80마디 .....	45
<악보 23>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81-90마디 .....	45

<악보 24> 리스트, S'il est un charmant gazon, 1-8마디 .....	48
<악보 25> 리스트, S'il est un charmant gazon, 9-12마디 .....	49
<악보 26> 리스트, S'il est un charmant gazon, 13-25마디 .....	50
<악보 27> 리스트, Oh! quand je dors, 1-10마디 .....	53
<악보 28> 리스트, Oh! quand je dors, 21-35마디 .....	54
<악보 29> 리스트, Oh! quand je dors, 41-55마디 .....	55
<악보 30> 리스트, Oh! quand je dors, 56-63마디 .....	56
<악보 31> 리스트, Oh! quand je dors, 82-93마디 .....	57
<악보 32> 리스트, Enfant, si j'étais roi, 1-8마디 .....	60
<악보 33> 리스트, Enfant, si j'étais roi, 25-34마디 .....	61
<악보 34> 리스트, Enfant, si j'étais roi, 39-47마디 .....	62

## 표 목차

[도표1] 「서동시집」의 구성 .....	9
[도표2] 슈베르트, Suleika I의 형식구조 .....	13
[도표3] 슈베르트, Suleika II의 형식구조 .....	25
[도표4] 리스트 가곡의 작곡 시기 .....	35
[도표5]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형식구조 .....	39
[도표6] 리스트, S'il est un charmant gazon 형식구조 .....	47
[도표7] 리스트, Oh! quand je dors 형식구조 .....	52
[도표8] 리스트, Enfant, si j'étais roi 형식구조 .....	59

#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Goethe의 시에 F.P. Schubert가 곡을 붙인 두 개의 가곡과 V. Hugo 시에 F. Liszt가 곡을 붙인 여섯 개의 가곡 중 네 개의 가곡을 곡의 이론적 배경과 음악 분석을 통해 시와 음악의 관계를 연구한다.

가곡(Lied)이 음악에서 예술가곡이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부터였다. 이 시기부터 가곡은 단순히 시에 음악을 얹어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문학적인 영감과 음악적인 표현의 완벽한 조화로서 예술가곡(Kunstlied)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sup>1)</sup> 낭만주의 예술가곡의 발전은 낭만주의 서정시와 피아노의 기술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낭만주의 서정시는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아름다운 선율의 곡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였으며 피아노의 기술 발전은 성악과 이중주 등에서 단순한 반주에 머무르던 피아노의 역할을 섬세한 표현력을 갖춘 대등하고 독립적인 역할로 이끌었다. 낭만주의 예술가곡의 거장으로 불리는 슈베르트는 예술가곡을 독립된 음악 장르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슈베르트에 의해 노래는 더 이상 시에 음악을 덧입힌 수준이 아니라, 시 속에 스며있는 감정을 추출해 내는 장르가 되었다.<sup>2)</sup> 슈베르트는 괴테와 하이네, 쉴러와 같은 독일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괴테를 열렬히 존경하여 17살에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시 <물레 잴는 그레첸> (Gretchen am spinnrade)을 시작으로 57편이나 되는 괴테의 시에 가곡을 작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슈베르트의 생애와 가곡의 특징을 알아보고 작시자인 괴테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알아본다. Suleika I, Suleika II는 괴테의 『서동시집』에 수록된 <줄라이카의 서>에 있는 시를 사용하였는데 <줄라이카의 서>는 괴테가 말년에 만난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 1784-1860)

1) 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2007), p.404

2) 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2007), p.408

와 사랑에 빠지면서 주고받은 편지를 사랑의 시로 옮긴 것이다. <동풍> (Ostwind)과 <서풍>(Westwind)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편의 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동시집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서동시집의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Suleika I, Suleika II의 시를 해석하여 조성과 화성을 중심으로 음악을 분석한 악보를 첨부한다.

리스트는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이자 근대 피아노 기법의 창시자이며 역사상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리스트는 파리에서 음악을 공부하였는데 그곳에서 프랑스 낭만주의에 매혹되어 빅토르 위고, 들라크 루아, 조루즈 상드, 베를리오즈 등 낭만주의의 주도적 인물들과 친분을 맺었다. 사랑, 평화, 죽음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리스트는 빅토르 위고의 시로 여섯 개의 가곡을 작곡하였는데 필자는 여섯 개의 가곡 中 네 개의 가곡 “Comment, disaient-ils”(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S’il est un charmant gazon”(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Oh! quand je dors”(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Enfant, si j’étais roi”(내가 만약 왕이라면)을 분석한다. 곡의 이해를 위해 리스트의 생애와 그의 가곡을 시기별로 나누어 특징을 알아보고 동시에 작시자인 빅토르 위고의 생애와 시대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시와 음악의 표현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조성과 화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다 높은 표현력을 요구하는 낭만주의 예술가곡을 연주자가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II. 본론

### 1.1. Goethe의 시에 의한 Franz Peter Schubert의 Suleika I, II 연구

#### 1) Franz Peter Schubert 의 생애와 가곡의 특징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은 예술가곡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예술가곡은 시와 선율 그리고 피아노가 하나로 융합되어 가사와 음악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한 장르”<sup>3)</sup>이다. 낭만주의는 문학에서 먼저 나타났고 미술에 이어 음악에서 나타났다. 낭만주의 시대의 기악음악은 언어를 음악으로 표현하려는 표제음악으로, 성악음악은 서정시에 음악이 결합한 예술가곡으로 나타났다. 예술가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 등과 같은 독일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와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진 피아노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프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1797년 빈 근교 리히텐탈(Lichtental)에서 태어났다. 그는 11세에 빈 궁정 예배당의 소년 합창단 단원으로서 음악 생활을 시작하였다. 13세에 작곡을 시작하였고, 15세에는 최초의 서곡을 썼다. 16세에 교향곡을 작곡한 이래 계속하여 교향곡 2, 3번, 가곡 <물레 잣는 그레첸>, <마왕>, <들장미> 등을 작곡하였는데, 18세 때까지는 모두 140곡이나 되는 아름다운 가곡을 썼다.<sup>4)</sup>

---

3) 홍세원, 서양음악사, 연대출판부(2002), p.434

천재적인 음악성을 타고난 그는 어린 시절 비엔나의 국립신학교에서 안토니오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와 오르간 주자인 루치츠키(Wenzel Ruzicka, 1758-1823)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후 몇 년간 교편을 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작곡에만 일생을 바쳤다.<sup>5)</sup> 슈베르트는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으나 평생 단 한 번도 음악감독이나 지휘자, 연주자와 같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지 못했다. 그의 유일한 수입원은 작곡료밖에 없었기에 그는 평생 동안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31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1000여 곡에 달하는 많은 곡을 썼는데 그 중 가곡이 600여 곡에 달했다. 슈베르트의 폭넓은 가곡 목록들은 스타일과 구조에서 무수한 가능성들을 개척했다. 그는 시의 정수를 아름다운 선율로 재창조시키는 재능이 있었다. 특히, 슈베르트는 문학적인 판단보다는 음악작품으로서의 가능성에 의거하여 시를 선택하였다.<sup>6)</sup> 슈베르트는 고전과 낭만 시대의 합류점에 있었다. 그의 교향곡들은 형식의 명료성, 극적인 힘과 연속성에 있어서 고전적이지만 리트와 피아노 곡에서는 완전히 낭만적이었다.<sup>7)</sup> 피테를 존경한 슈베르트는 57편에 달하는 피테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 1814년, 17살의 나이에 피테의 「파우스트」에서 발췌한 《Gretchen am Spinnrade (물레 찻는 그레첸)》에 곡을 붙였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물레를 연상시키면서 고조되는 그레첸의 감정을 가곡으로 탁월하게 그려냈다. 그의 가곡들은 과거로부터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가사 그리기(word-painting)의 차원을 넘어서 미세한 리듬과 풍부한 화성, 중요한 단어에 대한 다이내믹의 강조, 고음과 저음의 적절한 배합 등으로 성악 선율은 탁월한 시적 효과를 자아냈다.<sup>8)</sup> 슈베르트에 의해 노래는 더 이상 시에 음악을 덧입힌 수준이 아

4) 현대인을 위한 명곡해설, 세광음악출판사(1987), p.161

5) 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음악세계(2007), p.405

6) Maurice J. E. Brown, 『The New Grove Schubert』. op.cit, p.8

7) 크리스틴 포니, 조지프 매클리스. 『음악의 즐거움(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p.98

8) 민은기 외 2명, 서양음악의 이해, (서울:예술 출판사, 2000), p.16



나라 시 속에 스며있는 감정을 추출해 내는 장르가 되었다.<sup>9)</sup> 슈베르트는 시에 따라 유행형식에서부터 통절형식과 낭송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였고 단순히 반주만을 담당하던 피아노를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그로 인해 가곡은 시와 음악, 성악과 피아노가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예술가곡이라는 새로운 독립된 장르로 정착하게 되었다.

##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의 생애와 작품

괴테는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였고, 또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괴테는 어려서부터 라틴어와 희랍어 등을 배웠고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 8세에 시를 쓰고 13세에 첫 시집을 발간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림과 음악 등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종류의 예술을 접해 평생 동안 문학뿐 아니라 음악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살아갔다. 20대에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문학에 관심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 시기부터 괴테는 광범위한 독서와 당대의 여러 저명한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와 희곡의 창작을 시도하였다. 점차 시와 희곡에 열중하던 괴테는 후대에까지 널리 알려진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1774)과 「파우스트」를 집필하여 세계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후 1775년 괴테는 고향인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독일 중동부에 위치한 바이마르(Weimar)로 이사하게 된다. 바이마르는 인구 6천 명 밖에 안되는 작은 공국으로, 신임 군주인 아우구스트(Karl August, 1758-1815) 대공은 괴테를 신임하여 국정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겼다. 그러나 안정적인 공직 수행에도 불구하고 괴테는 문학에 대한 갈증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

9) 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에서 재즈까지, 2007, p.408

못하여 1786년 바이마르의 공직 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3년여의 여행 동안 그는 이탈리아의 명소들을 돌아보고 로마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게 된다. 이 여행 경험은 괴테가 자신의 예술관과 존재의식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동안 보았던 수많은 중세의 건축물, 그림, 문화양식과 자연 풍경은 그의 문학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여행은 괴테가 고전주의적 예술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sup>10)</sup> 1794년 괴테는 독일 동부에 위치한 예나(Jena)에서 실러 (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를 만나게 되는데 이후 이 둘은 10년 이상 친분 관계를 지속하며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한동안 슬럼프를 겪던 괴테는 실러의 격려로 1796년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Wilhelm Meisters theatralische Sendung)』을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로 개작하여 완성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괴테는 연극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수업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sup>11)</sup> 괴테는 ‘보편주의’를 주창했는데 그의 보편주의적 입장은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사상을 총체적으로 집약해 서동시집을 출판했다. 장르를 넘어 통합을 이끈 괴테의 시도는 낭만주의로 이어져 19세기 유럽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독일의 고전주의를 이끈 작가로 평가받지만, 그의 작품은 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쳐 음악에서는 낭만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괴테는 첼로와 피아노를 배우며 풍부한 음악적 지식을 갖추었으며 모든 예술 중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평가할 정도로 음악을 가까이했다.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괴테의 시는 독일 예술가곡 작곡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라인하르트 116곡, 베토벤 9곡, 슈베르트 57곡, 브람스

10) 박찬기, “1. 괴테와 그의 시대 : 괴테의 고전주의와 실러의 고전주의의 인식 비교” 괴테연구4, no.0 (1991) p.9-34.

11) 장혜순, “괴테의 문화비판적 시각 - 빌헬름의 연극적 딜레탕티즘”, 괴테연구 19, no.0(2006): p.73-92.

5곡 등이 괴테의 시를 토대로 작곡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의 시가 예술가곡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괴테가 쿛노래와 함께 시를 쓰는 것을 즐겼다는 것과 낭독자에게 피아노 반주와 함께 낭독하길 주문했다는 점은 그의 시 속 강한 언어적 음악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괴테의 시문학 중 정형시, 리트(Lied)이다. 리트는 연이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유펙가곡을 작곡하기 적합했다. 리트에 대해 괴테는 언어와 음악의 일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12)</sup> 괴테는 음악이 느낌의 영역을 열어주고 시적 언어를 통해 내재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때 시와 음악의 결합이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예술가곡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예술가곡은 시와 반주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작품으로, 시의 영감과 음악의 표현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생한 느낌을 더하기 때문이다.<sup>13)</sup> 괴테는 단순히 표면적이고 국부적 단어에 대한 음회화적(音繪畵的) 묘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재적인 것을 전체적 기분으로 옮김”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가 주는 전체적 기분에 젖어 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절형식 보다는 유펙형식으로 작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대의 불합리성에 민감하게 숙고하고 비판하는 지성을 지닌 괴테는 83세의 생애 동안 소설, 시, 희곡 등 문학의 각 분야에서 명작을 남기고 조형예술과 정치, 자연과학 분야도 큰 업적을 남겼다.

### 3) Johann Wolfgang von Goethe 「서동시집」의 특징

괴테의 서동시집(West-östlicher Divan) 은 1819년, 괴테가 70세 되던 해인 1819년에 쓰여진 시집으로 동방인 페르시아로의 상상여행을 담은 시집이다. 239 편의 시를 12개의 소재목을 지닌 연작시 형태의 시편으로

12) 김미영, “괴테의 리트 음악미학”, 『음악이론연구』 4 (1999), 14

13) 이영남, 「시의 날개 위예-괴테와 음악」,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2013, p.149-170

뭉은 이 시집은 스스로 서양사회의 시인임을 자임하는 노년의 괴테가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동방의 옛 시인 하피스(Hafis, 1327-1390)에게 보내는 시적 응답이다. 괴테는 페르시아의 시인 하피스의 번역된 시들을 조금씩 접해오다가 오스트리아의 동양학자인 하머(Hammer)의 번역본을 통해 그 전체를 접하게 된다.<sup>14)</sup> 괴테는 14세기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의 시집 『디완 Diwān』을 읽고 영감을 얻어 서동시집을 집필했다. ‘디완(Diwān)’이라는 단어는 유럽에선 소파와 같은 의자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방에서는 ‘두루마리 또는 기록된 문서의 모음집’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낯선 용어로 서방시인인 괴테는 자신의 시들을 한데 묶어 그 이름을 『서동시집』이라 칭했다.<sup>15)</sup> 서방시인의 동방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는 모음집이 『서동시집』이다. 괴테는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는 독일의 시대 상황과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페르시아, 즉 하피스의 시대 상황이 유사하다고 느끼며 시대 상황의 혼돈 속에서도 고양된 정신을 추구하는 하피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하피스가 다루는 주제에도 깊이 공감하였다. 괴테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등을 겪으며 극심한 대립과 분열에 빠진 유럽과는 달리 동방 세계는 그 안에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로 여겼다. 동시에 현인들의 지혜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여겨져, 괴테 자신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 삼게 된 것이다. 나폴레옹 체제 와해 등의 혼란한 상황은 괴테로 하여금 현실 극복의 한 양상으로서 『서동시집』이라는 상상적 도피를 시작하게 했고 이를 통해 그의 시 세계는 확장될 수 있었다.<sup>16)</sup>

「서동시집」은 1819년 196편에서 1827년에 43편이 증보된 239편의 「신 디반 Neuer Divan」으로 개정되어 나왔으며, 열두 개의 시 묶음, 「가인의 서 Moganni Nameh. Buch des Sängers」, 「하피스의 서 Hafis Nameh. Buch Hafis」, 「사랑의 서 Usch Nameh. Buchder Lieb

14) 장희창, 「괴테의 『서동시집』과 세계시민주의의 전망」, 2008, 24쪽.

15) 이진호, “괴테의 서동시집을 통해 본 변신의 양상”,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7-14, p.120-122.

16) 헨드릭 비루스, 전영애, 괴테 서·동시집 연구, p.13-20 참조

e」, 「명상의 서 Tefkir Nameh. Buch der Betrachtungen」, 「불만의 서 Rendsch Nameh. Buch des Unmuths」, 「격언의 서 Hikmet-Nameh. Buch der Sprüche」, 「티무르의 서 Timur Nameh. Buch des Timor」, 「줄라이카의 서 Suleika Nameh. Buch Suleika」, 「주막 시동의 서 Saki Nameh. Das Schenkenbuch」, 「비유의 서 Mathal-Nameh. Buch der Parabeln」, 「배화교도의 서 Parsi Nameh. Buch des Parsen」, 「낙원의 서 Chuld Nameh. Buch des Paradieses」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열두 묶음의 시편들 중에는 아름다운 연시도 있으며 심원한 삶의 지혜, 그리고 깊은 시론적 성찰들을 담고 있는 시편들도 있다.<sup>17)</sup>

[도표 1] 「서동시집」의 구성

주 제	제 목
시론	가인(歌人)의 서 Moganni Nameh. Buch des Sängers
	하피스의 서 Hafis Nameh. Buch Hafis
	사랑의 서 Usch Nameh. Buchder Liebe
잠언	명상의 서 Tefkir Nameh. Buch der Betrachtungen
	불만의 서 Rendsch Nameh. Buch des Unmuths
	격언의 서 Hikmet-Nameh. Buch der Sprüche
인물	티무르의 서 Timur Nameh. Buch des Timor
	줄라이카의 서 Suleika Nameh. Buch Suleika
	주막(酒幕) 시동(侍童)의 서 Saki Nameh. Das Schenkenbuch
종교	비유(比喩)의 서 Buch der Parabeln
	배화교도의 서 Parsi Nameh. Buch des Parsen
	낙원의 서 Chuld Nameh. Buch des Paradieses

17) 헨드릭 비루스, 전영애, 괴테 서·동시집 연구, p.3-6 참조

「서동시집」에서는 괴테가 1814-1815년 동안 집필한 ‘줄라이카의 서’가 가장 방대하다. 줄라이카(Suleika)는 괴테가 1819년 발표한 서동시집에 등장하는 여인이다. 괴테는 이 시집을 쓸 때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마리안네 폰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와 많은 서신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서신에서 시를 통해 애정을 표시하고 때로는 남들이 읽어도 알 수 없도록 암호를 사용하였다. 「줄라이카의 서」에서 괴테와 빌레머는 각각 ‘하템(Hatem)’과 ‘줄라이카(Suleika)’라는 필명으로 등장한다. 이들이 편지에 쓴 시들은 줄라이카 시편의 토대가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빌레머가 쓴 시가 「줄라이카 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1857년 그녀가 헤르만 그림(Hermann Grimm, 1828-1901)<sup>18)</sup>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빌레머 사후 10년인 1869년에 헤르만 그림이 괴테와 줄라이카를 집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sup>19)</sup>

---

18) 헤르만 그림: 독문학자, 독일 괴테 학회의 회원으로 괴테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19) 요한 볼프강 폰 괴테/김용민 역, 서동시집, 민음사, 2007, p.237.

## 1.2 Franz Peter Schubert의 가곡 분석

### 1) Suleika I

#### (1) Suleika I 가사와 번역 : 동풍의 노래

가사	번역 <sup>20)</sup>
<p>Was bedeutet die Bewegung?            Bringt der Ost mir frohe Kunde?            Seiner Schwingen frische Regung            Kühlt des Herzens tiefe Wunde.</p> <p>Kosend spielt er mit dem Staube,            Jagt ihn auf in leichten Wölkchen,            Treibt zur sichern Rebenlaube            Der Insekten frohes Völkchen.</p> <p>Lindert sanft der Sonne Glühen,            Kühlt auch mir die heißen Wangen,            Küßt die Reben noch im Fliehen,            Die auf Feld und Hügel prangen.</p> <p>Und mir bringt sein leises Flüstern            Von dem Freunde tausend Grüße:            Eh' noch diese Hügel düstern,            Grüßen mich wohl tausend Küsse.</p> <p>Und so kannst du weiter ziehen!            Diene Freunden und Betrüben.            Dort wo hohe Mauern glühen,                Dort find'            ich bald den Vielgeliebten.</p> <p>Ach, die wahre Herzenskunde,            Liebeshauch, erfrishtes Leben            Wird mir nur aus seinem Munde,            Kann mir nur sein Athem geben.</p>	<p>무슨 뜻일까 이 움직임이?            동풍이 내게 기쁜 소식 전하려는 걸까?            그 날갯짓 시원한 바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식혀주네.</p> <p>애무하듯 먼지와 노닐다가            뭉게구름 속으로 쫓아버리고            즐거운 벌나비떼            든든한 포도넝쿨 사이로 몰아주네.</p> <p>햇살의 따가움 부드럽게 해주고            달아오른 나의 뺨 식혀주고는            들과 언덕에 가득한 싱싱한 포도 넝쿨에            달아나면서 키스하네.</p> <p>그리고 나에게 전해주는 나직한 속삭임            벗들이 전해주는 수많은 인사일지라            이 언덕 저물기 전에 수천 번 키스로            인사하네.</p> <p>바람아 너는 이렇게 계속 스쳐가는구나!            친구들에게 그리고 상심한 이들에게            저기 높은 성벽 석양에 빛나는 곳            그곳에서 나는 곧 나의 님 찾으리</p> <p>아! 그러나 진실한 마음의 표시            사랑의 입김은 삶을 생기있게 하네            오로지 그의 입으로부터만 내게 주어지네            오로지 그의 숨결만이 내게 줄 수 있네.</p>

20) Goethe, Johann Wolfgang von, 「서동시집」, 최두환 역.

## (2) Suleika I 악보 분석과 성악가적 해석

이 곡은 괴테의 「서동시집의 (West-östlicher Divan)」 중 제 8편 「줄라이카 서(書)」에 실린 빌레머의 시 <동풍>(Ostwind)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그녀가 1815년 9월 23일부터 26일에 있었던 괴테와의 밀회를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동쪽으로 가던 마차 안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leika I 은 빠르기를 기준으로 A-B와 C-coda 두 부분으로 나뉜다. 형식면에서는 A-B-C-coda 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슈베르트는 시를 크게 세 부분(A-B-C-coda)으로 나누어 통절형식으로 작곡했다.

1연에서는 'Etwas lebhaft(약간 생기있게)'의 빠르기로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 화자의 기대감과 설레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4연은 바람의 다채로운 움직임을 묘사하며 바람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낸다. 5연에서는 나의 님을 찾으러 가겠다는 화자의 큰 사랑과 결연한 의지를 다 이내믹한 반주와 잦은 전조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6연은 'Etwas langsamer(약간 느리게)'의 빠르기로 화자가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마무리된다.

박자는 3/4박자의 곡으로 성악 부분은 3/4박자의 선율로 진행하는데 반해 동일한 박자 안에서 반주는 6/8박자 같이 들리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호함은 동풍의 설렘 속에 들어있는 긴장감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성은 b minor에서 시작되며 대부분 B Major로 전조된다. 이 곡에서 화성은 시의 정적인 분위기가 동적인 분위기로 바뀔 때 그 변화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곡 전체에 걸쳐 가사와 반주부에서는 동풍에 대한 연관성을 가진 리듬이 사용되고 있다. 성악부는 다양한 선율과 리듬으로 가사에 충실하게 진행되는 반면 반주부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리듬 패턴을 반복한다. 성악가는 시의 분위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악보에 표시된 셈여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도표 2] Suleika I 의 형식 구조

형식	마디	구성	박자	빠르기
도입부	1-5	b	3/4	Etwas lebhaft 약간 생기있게
A	6-24	D-F # -B		
	25-41	B		
	42-59	Bm-Dm-B		
B	60-83	B-b		
	84-108	Am-F-A # -F # -B		Etwas Langsamer 약간 느리게
C	109-133	B		
Coda	134-143	B		

도입부 다섯 마디는 곡의 전체 분위기를 암시하는 부분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시인의 설레는 감정을 표현한다. 1-3마디에서는 동풍을 묘사하는 빠른 반주가 'Mit Verschiebung(움직임을 가지고)'으로 연주된다. 1-5마디까지의 전주는 b minor의 으뜸음으로 시작하는 16분음표 음형이 3옥타브에 걸쳐 진행되다가 4-5마디에서 아르페지오로 마무리되는데 아르페지오 반주는 감7화음에서 V도로 진행되며 반중지를 형성한다. 불어오는 동풍을 통해 연인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인의 기대감은 1-3마디의 긴장된 음형으로 고조되는데 특히 3마디의 Ger.6 (독일6화음)을 통해 긴장감을 지속하다가 4-5마디의 아르페지오가 있는 3박의 긴 음가에서 데크레센도의 하행을 통해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킨다. <악보 1>

<악보 1> Suleika I, 1-5마디

1 *Etwas lebhaft.* 3옥타브에 걸친 상행

*Mit Verschiebung.*

bm pp Ger.6

6-7마디 피아노 반주는 곡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b minor로 시작하는 이 곡은 반주의 오른손에 16분음표들은 바람의 작은 움직임 표현하고 있고 반주의 왼손과 성악 선율의 ♩, ♪ ♪ ♪이 리듬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시인의 두근거리는 심장을 표현한다. 6마디에서 108마디까지 이 음형이 반복 사용된다. 피아노가 6마디부터 16분음표를 pp로 잔잔한 바람의 소리 형태로 움직이는 가운데 성악 선율이 못갓춘마디로 시작한다. 성악가는 바람의 의미에 대한 의문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다가 10-11마디에 와서 이 동풍이 시인에게 기쁨을 주리라는 기대감을 점차 음을 상승 진행시키며 표현한다. 선율 부분은 3/4박자에 충실하게 흐르고 있으나 반주부의 리듬은 마치 6/8박자와 같은 모호한 느낌을 주는데 시인의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심리를 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3마디에서 major로 바뀌게 되는데 그 까닭은 'Kühlt des Herzens tiefe Wunde (마음의 상처를 식혀주네)'의 가사와 연관이 있다. 성악가는 불어오는 바람의 형상처럼 소리를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내야 하며, 긴장감 있게 진행되는 반주 리듬 위에서 성악 선율을 보다 긴 호흡으로 연결하며 레가토(legato)되게 불러야 한다. 또한 소리의 완급을 조절하여 바람이 가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다채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2>

<악보 2> Suleika I, 6-13마디

6  
Was be - deu - tet die Be - we - gung?

*mp sempre legato*

10  
bringt der Ost mir fro - he Kun - de? Sei - - ner

14  
Schwin - gen fri - sche Re - gung kühl des Her - zens tie - fe Wun - de,

DM

19마디부터 가사 ‘frische 신선한’, ‘kühlt 식히다’, ‘tiefe 깊은’ 에 셋잇단음표가 있는데 성악가는 이 리듬을 유의해서 연주해야 한다. 해당 마디 피아노 반주부의 셈여림은 pp이며 첫 박에 테크레센도가 있다. <악보 3>

<악보 3> Suleika I, 14-22마디

14  
Schwin - gen fri - sche Re - gung kühl't des Her - zens tie - fe Wun - de,

18 BM  
sei - ner Schwin - gen fri - sche Re - gung kühl't des Her - zens tie - fe Wun - de.

25-26마디 피아노 반주부의 선율은 바람을 묘사하는 듯한 음형을 사용하고 있고 ppp와 테크레센도를 살려 연주해야 한다. <악보 4>

<악보 4> Suleika I, 23-26마디

23  
바람을 묘사하는 듯한 음형

25 ppp F#

31-42마디의 기분 좋은 동풍은 시인의 행복한 마음을 그리고 있다. 31마디와 36마디의 'treibt'(재촉하다)는 6도 위로 도약을 하는데 이것은 날아다니는 벌과 나비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 부분에서 성악가는 높은 도약에 유의하여 호흡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피아노 반주 왼손의 Bass 부분은 옥타브로 확대되면서 보다 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성악 선율을 부각시킨다. 7-22마디가 연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42마디부터는 기대했던 마음이 슬픔으로 이어지는 느낌이다. 42마디 간주는 b minor의 I 도를 사용해 시인의 변화될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악보 5>

<악보 5> Suleika I, 31-42마디

31 treibt zur si-chern Re-ben-lau-be der In-sek-ten fro-hes

35 Base 옥타브 아래 확장  
Völk-chen, treibt zur si-chern Re-ben-lau-be der In-

39 sek-ten fro-hes Völk-chen. 42 Lin-dert  
bm

62마디 ‘Und mir bringt sein leises Flüstern (그리고 나에게 전해주는 나직한 속삭임)’ 의 가사 부분에서는 ‘속삭임’이라는 가사가 표현되도록 성악 선율과 반주 모두 pp로 소리를 줄여 연주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성악가가 가사를 생각하며 침착하게 노래해야 점차 클라이맥스로 향해 가는 곡의 흐름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성악 선율이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Legato를 살려 부드럽게 연주해야 하고 조표의 음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악보 6>

<악보 6> Suleika I, 60-71마디

60

Und mir bringt sein

64

lei - - ses Flü - - stern von dem Freun - - de

68

tau - - send Grü - - ße;

BM

bm

*dimin.*

93마디부터 가사는 ‘저기 높은 성벽 석양에 빛나는 곳, 그곳에서 나의  
님 찾으리’ 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화자의 큰 사랑과 결연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전조가 이루어지는 걱정적인 반주와 성악부의 고음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성악가는 다이내믹한 고음을 노래하기 위해 호흡의 긴장  
감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사 ‘Dort’를 발음할 때 t가 강하게 들  
릴 수 있게 발음하는 것이 ‘그곳에서’ 라는 가사를 강조하는데 도움을 준  
다.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 a minor로 시작해 94마디에  
서 F major, 96마디에서 C# major로 전조 되는데 크레센도와 ff로 몰아  
치는 반주와 함께 성악가도 걱정적인 감정과 가사를 호흡을 사용해 강하  
게 표현하도록 한다. 반주부는 92마디부터 왼손 Bass 선율이 반음씩 상  
향하고 96마디에서는 옥타브로 확대하여 성악 성부의 클라이맥스를 돕는  
다. <악보 7>

<악보 7> Suleika I, 89-100마디

89  
 zie - hen, die-ne Freun - den und Be - trüb - ten. Dort,  
 dort, wo ho - - he Mauern glü - hen, dort find ich  
 bald den Viel-ge - - lieb - - - - - ten

am F BbM A# F#M  
*cresc.*  
*ff* *fr* *decresc.*

6연에서는 속도가 *Etwas langsamer* (약간 느리게)로 앞의 부분보다 느려지고 조성이 바뀐다. 성악 선율의 리듬도 정확한 3/4박자 형태가 드러나며 곡의 결말로 나아간다. 필자는 6연이 곡의 주제가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입김은 삶을 생기있게 하네’의 가사를 통해 사랑에 빠진 화자의 충만한 감정과 사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슈베르트는 6연의 가사를 총 3번 반복했는데 이를 통해 해당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9마디에서 시작된 베이스의 F#음은 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며 고요하게 안정감을 찾아가는 마리안네의 심리를 표현한다. 1연에서 5연까지 선율과는 다른 음형을 보이다가 곡의 결정적인 부분인 6연에서 피아노는 달라진 음형 패턴과 속도로 변화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66마디부터 82마디까지와 D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의 모든 피아노 반주는 동일한 리듬 패턴 ♪♪♪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곡의 6연에 사용되는 반주의 왼손 부분은 ♪♪♪♪로 되어있다. 이렇듯 작곡가 슈베르트는 시의 뉘앙스와 분위기를 다양한 조성과 음형을 사용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악가는 성악 선율의 셋잇단음표에 유의한다. 가사 속 다양한 시어들을 다채롭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시어를 자신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거친 뒤, 각 음표의 음가를 충실히 지켜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8>

<악보 8> Suleika I, 109-120마디

109

*Etwas langsamer.* Ach, die wah - re Herzens - kun - de, Lie - bes - hauch, er - frishtes

114 지속음

Le - ben wird mir nur aus sei - nem Mun - de, kann mir nur sein A - tem

118

ge - ben, sein A - tem ge - - - ben.

## 2) Suleika II

### (1) Suleika II 가사와 번역 : 서풍의 노래

가사	번역 <sup>21)</sup>
<p>Ach, um deine feuchten Schwingen, West, wie sehr ich dich beneide! Denn du kannst ihm Kunde bringen, Was ich in der Trennung leide.</p>	<p>아! 축축한 서넛 바람아, 네가 부럽구나. 떨어져 지내는 이 내 아픔을 그이에게 너는 소식 전할 수 있겠구나.</p>
<p>Die Bewegung deiner Flügel Weckt im Busen stilles Sehnen: Blumen, Auen, Wald und Hügel Stehn bei deinem Hauch in Tränen.</p>	<p>네가 날개를 치면 가슴속에 잠잠하던 그리움 다시 깨어나고 너의 입김 스쳐가는 곳엔 꽃과 눈에, 숲과 언덕에 눈물 고인다.</p>
<p>Doch dein mildes sanftes Wehen Kühlt die wunden Augenlider; Ach, für Lied müßt ich vergehen, Hofft ich nicht zu sehn wieder.</p>	<p>하지만 너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부르튼 눈시울을 쓰다듬는다. 그이를 다시 뵈 희망 없다면 아, 아픔에 못 이겨 나는 허물어지리.</p>
<p>Eile denn zu meinem Lieben, Spreche sanft zu seinem Herzen, Doch vermeid, ihn zu betrüben, Und verbirg ihm meine Schmerzen!</p>	<p>그럼 어서 내 님에게 가거라 가서 부드럽게 그이 가슴에 말하거라 하지만 그이가 슬퍼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p>
<p>Sag ihm, aber sag's bescheiden; Seine Liebe sei mein Leben! Freudiges Gefühl von beiden Wird mir sein Nähe geben.</p>	<p>말하거라, 겸손하게 말하거라, 그의 사랑은 나의 생명이라고, 이 둘의 기쁨, 사랑과 생명, 그의 곁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지리.</p>

21) Goethe, Johann Wolfgang von, 「서동시집」, 최두환 역.

## (2) Suleika II 악보 분석과 성악가적 해석

Suleika II는 괴테의 「서동시집 (West-östlicher Divan)」 중 제 8편 「줄라이카 서(書)」에 실린 빌레머의 시 <서풍>(Westwind)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다. 이 시는 빌레머가 괴테와의 밀회를 끝내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인 1815년 9월 26일에 쓰였다. 이 곡에서 서풍은 비를 부르는 바람을 상징하며 빌레머의 슬픈 사랑을 괴테에게 눈물로 전하는 전달자로 표현되었다. Suleika I 과 Suleika II의 시는 바람이라는 매개를 사용하여 연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두 곡에서 시인의 현실과 감정은 동일하지 않다. 슈베르트는 이 두 작품을 음악의 형식 면에서는 유사하게 진행하지만 빠르기 배열, 반주 음형, 조성의 변화를 통해 시의 상반된 분위기를 나타냈는데 Suleika II에서는 화자의 절제된 슬픔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이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곡의 우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Suleika II는 음악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A-B-A')와 후반부(C-C'-Coda)로 이루어져 있다. 슈베르트는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 이 곡에서도 원작 시에 없는 행과 연을 반복하였으며, 일부의 반복이 있는 통절 가곡 형식으로 작곡했다. 박자는 2/4→3/4로 변화한다. 조성은 전반부에서 F-D $\flat$ -B $\flat$ -G-B $\flat$ 으로 짧은 단위로 계속 전조 되며 후반부에서는 B $\flat$  Major가 곡의 끝까지 이어진다. Tempo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 1 연부터 제 3 연까지 2/4 박자에 Mäßige Bewegung (적당한 움직임)을 가지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4연과 5연에서 시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3/4 박자와 Etwas geschwinder (약간 빠르게) 빠르기도 바뀐다. 전반부의 주요리듬은 ♩♩과 왼손의 ♩ ♩ ♩ ♩와 ♩ ♩ ♩ 이고 후반부에서는 ♩ ♩ ♩ ♩의 리듬을 사용하여 서풍을 통해 연인에게 소식을 전하려는 시인의 조급한 마음을 묘사한다.

[도표 3] Suleika II의 형식구조

형식	마디	구성	박자	빠르기
A a-b-a'	1-39	B b -g	2/4	Mäßige Bewegung 적당한 움직임 가지고
	40-83	F-D b		
	84-128	B b -G-B b		
B c-c	129-146	B b -b b -B b	3/4	Etwasgeschwinde 약간 빠르게
	147-170	B b		
coda	171-186	B b		

도입부 피아노 반주부의 왼손은 8분음표의 리듬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고 오른손은 16분음표의 옥타브 도약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의 말 발굽 소리를 연상시키듯 일정한 리듬을 반복한다. pp에서 시작해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인의 복잡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한다. Suleika II 반주부에서는 특정음, Bb와 F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1-5마디에서 왼손의 아래 성부와 오른손은 모두 F만을 제시하며 F를 으뜸음보다 더 중요한 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6마디의 강박에서 V7/vi의 부속 7화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란한 조인 g 단조를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 조성은 제 1 연의 부분과 제 5 연의 부분에서 중요한 전조로 작용한다. 9-12마디의 성악 선율은 장6도 도약으로 시작된다. 조용히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이 pp로 시작해서 13-15마디에서 멜로디를 다시 반복한다. 반주부에서는 짧은 16분음표와 음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무궁동 리듬이 음악에 리듬감을 더하고 있다. 성악가는 이음줄로 연결된 음표들을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드럽게 처리해야 하며 악보의 리듬에 유의해 연주한다. <악보 9>

<악보 9> Suleika II. 1-17마디

1 *Mäßige Bewegung.*  
Pianoforte.  $BbM$   $pp$

6 Ach, um dei - ne feuch - ten -

9

12 Schwin - gen, West, wie sehr ich dich - be - nei - de, denn du -

4행의 음악은 Eb-E $\flat$ -F의 반음계적 상행으로 Trennung (고통)의 Tren-부분이 가장 높고 긴 음으로 강조되고 있다. 성악 선율의 상행진행에 대비되는 피아노 반주의 베이스 진행은 G-G $\flat$ -F의 하행진행을 취하며 반진행한다. <악보 10>

<악보 10> Suleika II. 18-29마디

18 반음계적 상행  
 kannst ihm Kun - de - brin - gen; was ich in der Tren - -  
 24 하행진행  
 - - nung lei - de, denn du - kannst ihm Kun - de -  
 g#m

2연의 내용은 시인 자신이 스스로 그리움을 이겨 보려고 지나가는 바람에게 의지하는 듯하나 오히려 그 바람에 의해 그리움이 더 커져만 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47-48마디의 성악 선율은 온음계적 하강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피아노 반주부의 패턴도 3도 관계의 이중음의 연타를 반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왼손은 당김음을 사용하여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다. 반주는 pp로 시작하여 가볍게 당김음 리듬을 통해 바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악보 11>

<악보 11> Suleika II. 36-51마디

36 Die Be-we-gung  
 42 dei-ner Flü-gel weckt im Bu-sen stil-  
 47 - les Seh - -FM- nen. Blu- men, Au- en,

슈베르트는 3행과 4행의 “Ach, für Leid müßt ich vergehen”(아, 아픔으로 나는 허물어지리)를 같은 선율을 사용해 세 번 반복함으로 화자의 내적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96-100마디의 “Hofft ich nicht zu sehn ihn wieder”(그를 다시 볼 희망 없다면)에서는 선율의 변화를 주며 마리안네의 슬픈 감정을 강조해 표현한다. 피아노 반주부는 96마디부터 크레센도 되었다가 99마디에서 데크레센도 되는 등 악상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성악가도 이러한 반주부와 흐름을 같이하며 곡의 분위기를 표현해야 한다. 102마디와 104마디는 조성 G Major에서 g minor 느낌이 나는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화자의 슬픈 감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성악가는 감탄사 'Ach'의 반응에 유의해야 하고 반복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가사를 악상기호를 충실히 지켜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12>

<악보 12> Suleika II, 96-117마디

96  
 hofft' ich nicht zu sehn ihn wie - der,  
*cresc.* *f* *p* GM

102  
 ach, für Leid müßt ich ver - ge - hen, hofft' ich nicht zu  
*pp* gm gm

108  
 sehn ihn wie - - - der, ach, für  
*f* *p* *pp*

113  
 Leid müßt ich ver - ge - hen, hofft' ich nicht zu

Suleika II의 후반부는 129마디부터 시작된다. 2/4 박자에서 3/4박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빠르기도 Mäßige Bewegung(적당한 움직임 을 가지고)에서 Etwas geschwinde(약간 빠르게)로 바뀐다. 반주 음형에서는 이 곡의 특징인 무궁동 리듬이 사라지고 왼손의 음형이 바뀌면서 시인의 절박한 심정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132마디부터 반주부에 두 개의 리듬 소재가 사용된다. 135마디는 Suleika I에 사용되었던 리듬 소재가 등장한다. 131-138마디에서 화성은 변하지 않지만 성악 선율은 옥타브를 도약하며 크게 움직인다. 템포의 변화로 곡의 분위기가 약간 경쾌해진 느낌이 든다. 성악가는 변화된 곡의 분위기를 인지하고 연주하되 흥분하지 않고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해야 하며 박자 안에서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에 유의한다. <악보 13>

<악보 13> Suleika II, 129-135마디

129  
Etwas geschwinde.  
pp  
멜로디의 리듬형태  
Ei - le denn zu mei-nem

132  
Lie - ben, spreche sanft zu sei-nem Her - zen;  
8  
동풍의 노래 리듬 소재  
doch vermeid, ihn zu be -  
두개의 리듬소재

152마디에서부터 피아노 반주부 크레센도와 함께 성악부도 같이 상승

되는 느낌으로 움직인다. 156마디 가사 Wird mir sein Nähe geben (그의 곁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지리) 부분에서 Db Major 코드로 전조된다. 이 부분에서 긴 호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악가는 해당 부분을 노래하기 직전 짧고 깊은 숨을 쉬어야 한다. 158마디와 159마디에서도 피아노 반주부에 두 개의 리듬 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4>

<악보 14> Suleika II, 152-162마디

152  
bei - den, freu - di - ges Ge - fühl von bei - - den

155  
wird mir sei - - ne Nä - - he ge - ben;

159  
sag ihm, a - ber sag's be - schei - den: sei - ne Lie - - - be sei mein

172마디부터는 마지막 종지를 향해 잠식되어 가는 장치들이 나타난다.

특히 피아노 반주는 mit halber stimme (소리를 반으로 줄여서) 되면서 ritardando로 속도가 느려지고 곧 pp로 진행되면서 더 점점 작아진다. 성악가는 쉼표와 이음줄 처리에 유의하며 ‘겸손하게 말하거라, 그의 사랑은 나의 생명이라고’ 라는 곡의 마지막 가사를 충실히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15>

<악보 15> Suleika II, 171-178마디

171 *mit halber Stimme*  
 sag ihm, a - ber be-schei - den:  
*staccato* *pp ritard. decresc.* *poco a*

175  
 sei - - ne Lie - be sei - mein Le - ben,  
*poco dimin.*

179마디에서는 곡의 마지막 가사가 한번 더 반복되는데 전 마디와 다르게 F음을 선율의 시작음으로 사용한다. 피아노 반주부는 subito piano, fp로 강하게 연주하고 곧바로 pp로 줄여서 사라져가듯 끝이 난다. <악보 16>

<악보 16> Suleika II, 179-186마디

179

sei - ne Lie - - be sei mein Le - - - -

*pp*

*fp* *pp*

183

- ben.

*dimin*

## 2.1. Hugo 시에 의한 Franz Liszt의 여섯 개의 가곡 중 네 개의 가곡 연구

### 1) Franz Liszt 프란츠 리스트의 생애와 가곡의 특징

프란츠 리스트는(Franz Liszt, 1811-1886)는 헝가리 소프론의 근교 라이딩(Rading)에서 태어났다. 에스테르하지 공작의 회계를 맡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피아니스트이자 바이올린, 플루트, 기타도 연주하고, 음악뿐 아니라 미술, 문학에도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리스트는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아버지에게서 피아노를 배웠고, 빈으로 이주한 후에는 체르니(Carl Czerny, 1791-1857)에게 피아노를,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에게 이론과 대위법을 배울 수 있었다.<sup>23)</sup> 체르니는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빈 음악계에 데뷔를 시켜주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시기에 리스트는 안토니오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7)에게 작곡을 배웠는데 이때 습득한 작곡방식이 리스트의 가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24)</sup> 거장들을 사사하며 리스트의 재능은 크게 발전했고 아버지 아담 리스트와 함께 유럽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연주회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리스트는 1830년부터 파리의 살롱에 출입하며 당대의 유명 사상가, 문필가, 음악가들과 친교를 맺는데 이 시기에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를 비롯해 알폰즈 라마틴(Alphonse Lamartine, 1790-1869),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 등의 문학가들을 만나 그들의 낭만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훗날 이들의 시로 작곡을 하였다. 가곡을 중심으로 볼 때 리스트의 음악 생애는 3기로 나뉜다. 제 1기는 1811년 - 1847년까지 파리 시기로 그의

22) 세광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427

23) Donald J. Grout, 민은기 외 번역,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권』 (서울: 이앤비플러스, 2013), p.77

24) Sacheverell Sitwell, Liszt, (New York : Dover Publication, Inc), pp.8~10

가곡 작품의 반 정도인 40여 곡의 가곡을 작곡하였는데<sup>25)</sup> 리스트는 제 1기에 '금발의 천사(Angiolin dal biondo crin)'와 '페트라르카의 '3개의 소네트(Tre sonetti del Petrarca)'를 비롯하여 다수의 가곡을 작곡하였고<sup>26)</sup> 그는 1841년 하이네의 시에 자신의 최초의 가곡 'Die Lorelei(로렐 라이)'를 작곡하였다. 같은 해 12월, 빅토르 위고의 시로 'Oh! quand je dors(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를 작곡하였다. 리스트는 쇼팽, 베를리오즈, 파가니니, 위고, 하이네 등 많은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 나갔다. 제 2기는 1848년-1861년까지 바이마르 시기로 리스트가 작곡에만 전념했던 때이다. 이 시기에 리스트는 파리에서 베를리오즈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교향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가곡 중 20여 곡이 이 바이마르 시기에 나왔다. 제 3기는 1861년-1871년까지의 로마 시기로 이 시기의 리스트는 세속적인 활동을 끊고 종교음악에만 몰두하여 많은 오라토리오와 미사곡을 작곡하였다.

[도표4] 리스트 가곡 작곡의 시기

활동시기	기간	가곡 수	편곡 수
파리 시기	1811년 - 1847년 1세-36세	32	1
바이마르 시기	1848년-1861년 37세-59세	25	27
로마 시기	1861년-1871년 50세-75세	16	4

25)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14, pp.852~857

26) John Douglas(1987), "Liszt as a song composer", NATS Bulletin, vol.43, No.4, p.4.

리스트는 다양한 언어로 82개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그 목록에는 독일 가곡 52곡, 프랑스 가곡 14곡, 이태리 가곡 5곡, 헝가리 가곡 3곡, 러시아 가곡 1곡, 그리고 12곡의 영미 가곡이 포함되어 있다.<sup>27)</sup> 리스트는 극적이고 무한히 변화하는 가사의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통절형식이나 변형된 유절형식을 사용하였다. 그의 가곡에서는 시의 격렬하고 화려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율의 동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낭송조의 구절을 갑자기 넣어 선율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템포와 리듬, 조성을 자주 바꾸며 대담하게 새로운 조를 집어넣기도 한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에서는 오케스트라적인 음향 효과를 의도한 피아노 반주를 통해 오페라와 비슷한 극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 2) Victor Hugo 의 생애와 작품의 특징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는 프랑스의 낭만주의 운동을 이끈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사회의식을 지닌 정치인이었다. 1802년 나폴레옹 군대의 장군이었던 아버지와 왕당파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위고는 아버지를 따라 유럽전역을 여행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와 시를 즐겼던 위고는 1817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콩쿠르와 1819년 투르즈의 아카데미 콩쿠르에서 시로 입상을 하였다. 그의 형 아베르와 함께 잡지 '문학수호자'(Conservateur Litteraire)를 창간하며, 젊은 예술가들과 '세나클'(Cénacle)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낭만주의 문학운동을 전개하였다. 1830년 일어난 7월 혁명은 프랑스 귀족주의 체제의 붕괴를 불러왔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위고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이 짙은 서정시들을 발표한다. '가을의 나뭇잎(Les Feuilles d'Automne, 1831)', '황혼의 노래(Les Chants de crepuscle)', '마음의 소

27) 정복주·채은희, 『성악예술』 (서울: 예술, 2009), p.188.



리(Les Voix interieures, 1837)', '빛과 그림자(Les Rayons et les Ombles, 1840)', 희곡 '왕은 즐긴다(Les Roi s'amuse,1832)' 등을 발표하였다.

위고는 시인이 민중의 목소리를 시로 대변하고 지도자처럼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Notre-Dame de Paris, 1831)' 등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1843년부터 연극 '성주(Buraves 1843)' 공연의 실패와 그의 장녀인 레오폴딘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그는 이후 문학활동은 접고 정치활동에만 전념한다. 1851년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반대하여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였으며 망명 생활 동안 '정벌 시집(Les Châtiments, 1853)', '정관 시집(Les Contemplations, 1856)',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 1852)' 등을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그의 서정적이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잘 드러냈다. 1870년 보물전쟁에서 패배한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하자 위고는 오랜 망명생활을 끝내고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이후 1885년 8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 2.2 Franz Liszt 의 네 개의 가곡 분석

### 1) Comment, disaient-ils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 (1) Comment, disaient-ils 가사와 번역

가사	번역
<p>“Comment,” disaient-ils,            “Avec nos nacelles            Fuir les alguazils!“            “Ramez, ramez!”            disaient-elles.</p>	<p>“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우리의 배를 타고            경관들을 피할까?”            “노를 저어요, 노를 저어요.”            그녀들이 말하네.</p>
<p>“Comment.” disaient-ils.            “Oublier querelles            Misères et périls?”            “Dormez, dormez!”            disaient-elles.</p>	<p>“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다툼을 잊을 수 있을까?”            “잠을 청해요, 잠을 청해요.”            그녀들이 말하네.</p>
<p>“Comment.” disaient-ils.            “Enchanter les belles            Sans Philtres subtils?”            “Aimez, aimez.” disaient-elles.</p>	<p>“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미묘한 묘약 없이            그녀들을 매혹시킬 수 있을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녀들이 말하네.</p>
<p>“Ramez, dormez, aimez!”            disaient-elles.</p>	<p>“노를 저어요, 잠을 청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녀들이 말했네<sup>28)</sup></p>

28) 홍정현 역

## (2) Comment, disaient-ils 악보 분석과 성악가적 해석

Comment, disaient-ils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는 3/4박자 g# minor, A-A' 의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체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곡이다. 이 곡에서 '그들'의 질문은 g# minor를 중심으로 같은 조성안에서 고정되어 진행되고, '그녀들'의 대답은 B-F-A b Major로 움직이며 감 7화음을 통해 단 3도 권 내 다양한 조성 변화를 이룬다. 리스트는 그들의 질문을 스타카토를 통해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녀들의 간결한 대답은 긴 선율을 사용해 표현함으로 곡의 온화한 분위기와 해결의 느낌을 주고 있다.

[도표5] 리스트, Comment, disaient-ils 형식구조

형식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A a-b	1-15	g# -B	3/4	Très animé 매우 활발하게
	16-24	B-g#		un peu retenu 약간 조심스럽게
A' a'-b'	25-37	g# -B		Très animé 매우 활발하게
	38-47	F-g#		un peu retenu 약간 조심스럽게
A''' a''-b''- coda	48-62	g# -A b		Très animé 매우 활발하게
	63-68	A b		un peu retenu 약간 조심스럽게
	69-89	A b -g#	a tempo vivace 본래 빠르기로 빠르게	

이 곡은 못갓춘마디의 전주로 시작되며 도입부에 사용된 스타카토로

인해 긴박하고 경쾌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지시어는 ‘Très animé’ ‘매우 활발하게’, ‘staccato, quasi Chitarra’로 ‘스타카토, 기타처럼’이다. 성악가는 5마디부터 ‘그들’의 질문을 사분침표를 활용해 ‘parlé’ ‘대사처럼, 말하듯이’ 들리게 연주해야 한다. 이 곡에서 ‘그들’의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minor로, ‘그녀들’이 대답하는 부분은 Major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성악가도 ‘그들’의 걱정이 담긴 질문을 노래할 때는 약간 어두운 톤으로, ‘그녀들’의 긍정적이고 간결한 대답은 밝은 톤으로 연주하며 표현에 대비를 주도록 한다. 10마디 ‘alguazils’ ‘경찰관’이라는 단어의 크레센도는 다음 마디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g# minor로 시작된 곡은 ‘그녀들’의 가사가 나오기 직전인 13마디에 이르러 반주의 화성이 B Major로 전조 되는데 이때 곡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변화한다.  
 <악보 17>

<악보 17> Comment, disaient-ils, 1-15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1-7) shows the vocal line starting with a rest, followed by the lyrics 'Comment, disaient-ils, a -'. The piano accompaniment is marked 'p staccato, quasi Chitarra'. The second system (measures 8-15) shows the vocal line with the lyrics 'vec nos na\_cel\_les fuir les alguazils?'.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markings for 'acceler.', 'cresc.', and 'BM'. The word 'alguazils?' is circled in the original image.

16마디의 ‘un peu retenu’ 는 ‘약간 조심스럽게’라는 뜻으로 앞의 스타

카토 느낌으로 끊어 연주하던 마디들과 다른 분위기로 연주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Ramez' '노를 저어요' 의 가사가 두 번 반복되는데 성악가는 18마디의 첫 번째 'Ramez' 는 'mezza voce' '작은 소리로 연주하라' 는 뜻을 지켜 소리를 줄여 연주하고 두 번째 'Ramez' 는 소리의 대비를 위하여 mezza voce로 시작해 조금 크게 노래한 후 pp까지 점차적으로 데크레센도 하도록 한다. 피아노 반주는 6/8박자처럼 진행되며 'smorzando' '음을 꺼지듯이 차차 약하게' 로 나타내고 있다. <악보 18>

<악보 18> Comment, disaient-ils, 16-23마디

16 *un peu retenu* **mezza voce** *pp*  
 Ra - mez! ra - mez!  
 BM *un peu retenu* *pp* *smorz.*

24마디의 가사는 'disaient-elles' '그녀들이 말했네'를 노래하며 '그들' 의 가사를 노래하던 앞의 경쾌한 템포로 돌아간다. 반주부의 지시어는 'Très animé 매우 활발하게' 이다. <악보 19>

<악보 19> Comment, disaient-ils, 24-31마디

24 *a tempo* *pp* disaient-ils. *parlé* Comment, disaient-ils, oubli.

*a tempo* *très animé* *p*

33마디-35마디 가사에서 ‘misère’ ‘불행’과 ‘périls’ ‘위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사의 강조를 위해 *accelerando*와 *staccato*를 지켜 노래한다. 반주도 함께 *accelerando*, *crescendo* 되고 C# Major - Db Major로 진행된다. 39마디 조성은 F Major로 전조되며 반주는 ‘una corda’ ‘약음 페달을 밟아서’ *pp*로 연주한다. 40마디의 가사 ‘Dormez’ ‘잠에 들어요’는 두 번 반복되는데 성악가는 첫 번째 ‘Dormez’는 악상 *p*로 소리를 작게 연주해야 하며, 두 번째 ‘Dormez’에서는 13박+페르마타의 긴 프레이즈를 노래해야 하기에 호흡조절에 주의한다. 동시에 *p*에서 테크레센도 후 다시 *pp*로 연주하라는 악보의 지시사항이 있으므로 음정의 도약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악보 20>

<악보 20> Comment, disaient-ils, 32-46마디

32 *acceler.*  
er que-rel - les, **mi - sè - re** et périls! C#-Db

39 *un peu retenu* *p* ***p*** ***pp***  
FM Dor - mez! dor - mez!  
*un peu retenu*  
*pp* *smorz.*  
*una corda*

56마디의 가사는 ‘미묘한 묘약 없이 미녀들을 매혹시킬 수 있을까?’라는 뜻으로 ‘enchanter’ ‘매혹하다’에 크레센도가 있다. 59마디 가사 ‘philtres’, ‘subtils’은 ‘사랑의 묘약’, ‘미묘한’의 뜻을 가지는데 이 마디에서 Ger.6 (독일6화음)의 사용이 신비롭고 긴장감 있는 곡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미묘한 사랑의 묘약’ 부분은 스타카토와 크레센도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사분음표가 짧고 날카롭게 점차적으로 커지게 들리도록 한다. <악보 21>

<악보 21> Comment, disaient-ils, 54-60마디

54

ment, disaient-ils, en chan - ter les bel.les sans phil.tres sub . tils?

cres.

Gr.6 (증6)

70마디 ‘a tempo vivace’ 는 곡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가사 ‘ramez’ ‘노를 저어요’, ‘dormez’ ‘잠을 청해요’, ‘aimez’ ‘사랑하세요’ 가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ramez!’ ‘노를 저어요’ 다음의 가사 ‘dormez!’ ‘잠을 청해요’ 에 p와 pp의 악상기호가 있으므로 이를 지켜 연주한다. 마지막 가사인 ‘aimez!’ ‘사랑하세요!’ 에는 프레이즈 전체에 걸쳐 긴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있다. 피아노 반주도 페달과 크레센도를 사용하며 성악 선율과 함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느낌을 표현하도록 한다. 80마디 피아노 반주가 끝난 후에도 성악 선율은 페르마타와 함께 계속되며 악보의 smorzando 표시를 지켜 음을 꺼지듯이 점차 약하게 들리도록 연주한다. <악보 22>



<악보 22> Comment, disaient-ils, 68-80마디

68

*dolce* **a tempo vivace** *p* *pp*

disaient-el : les, ra - mez! dor - mez!

**a tempo vivace**

75

*p* *smorz.*

ai - mez!

*cresc.*

pp로 반주부의 마지막 아르페지오 후 성악선율은 악보 상의 트릴과 페르마타, 리타르단도를 지켜 급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유있게 끝음을 처리하도록 한다. <악보 23>

<악보 23> Comment, disaient-ils, 81-90마디

81

*p* *rit.*

disaient-el - - - les, disaient-el - - - les!

el - - - les!

2) S'il est un charmant gazon (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1) S'il est un charmant gazon 가사와 번역

가사	번역
<p>S'il est un charmant gazon            Que le ciel arrose,            Où brille en toute saison,            Quelque fleur éclore:            Où l'on cueille à pleine main            Lys, chèvrefeuille et jasmin,            J'en veux faire le chemin            Où ton pied se pose,            J'en veux faire le chemin            Où ton pied se pose,</p>	<p>만약 하늘의 비를 받아            모든 계절 꽃이 피어나            백합과 인동초, 그리고 자스민 꽃을            한 아름 꺾을 수 있는            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당신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싶어요.</p>
<p>S'il est un rêve d'amour            S'il est un rêve d'amour            Parfumé de rose            Où l'on trouve chaque jour,            Quelque douce chose,            Un rêve que Dieu bénit,            Où l'âme a l'âme s'unit,            Oh!, J'en veux faire le nid            Où ton coeur se pose            J'en veux faire le nid            Où ton coeur se pose!</p>	<p>만약 사랑의 꿈이 있다면,            장미 향기 가득하고            거기서 날마다            부드러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신이 축복한 꿈에서            영혼과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되고            오! 그대의 마음이 설 수 있도록            그 꿈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오! 그대의 마음이 설 수 있도록            그 꿈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요.<sup>29)</sup></p>

29) 홍정현 역

## (2) S'il est un charmant gazon 악보 분석과 성악가적 해석

이 곡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정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길’과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화자의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다. 6/8박자의 서정적이고 우아한 분위기의 곡으로 A b Major 조성으로 시작된다. 지시어는 ‘Allegretto con moto e grazioso’ ‘약간 빠르고 우아하게’이며 A-A' 형식의 유절 가곡이다. 자연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잦은 전조가 사용되며 리스트의 서정성이 돋보인다.

[도표6] Liszt, S'il est un charmant gazon 형식구조

형식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A a-b	1-16	A b -c-C-a	6/8	Allegretto con moto e grazioso 약간 빠르고 우아하게
	17-29	A b		
A' a'-b'	30-43	A b -c-C-a		
	44-58	A b		

이 곡은 6/8박자, 지시어는 ‘Allegretto con moto e grazioso’ ‘약간 빠르고 우아하게’ 이다. 도입부의 ‘dolce leggiero’ 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라는 뜻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로 연주해야 하는 곡이다. A b Major 조성이며 곡의 가사는 자연을 통해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마음

이 전달되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계속적으로 전조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조성 변화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마디 피아노 반주부의 음형은 7-8마디 동형진행(Sequence)을 통해 c minor로 전조된다. 성악가는 도입부터 6/8 박자의 느낌을 가지고 가볍고 부드럽게 연주하며, 7-8마디 하행하는 선율에서는 음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호흡을 유지해서 노래한다. 특별히 반음 음정에 주의해 부분적으로 minor 느낌이 느껴지도록 한다. <악보 24>

<악보 24> S'il est un charmant gazon, 1-8마디

1 **Allegretto con moto e grazioso.**

Singstimme. Tenor. *p*

Klavier. *p dolce leggiero*

AbM S'il est un char.mant ga.zon,

5 que le ciel ar.ro.se, CM oi brille en tou.te sai.son

\* 동형진행 \*

10마디 ‘smorzando’는 ‘차츰 약하게’라는 뜻이며 이 부분에서 C Major가 잠깐 차용되는데 이는 좀 더 부드러운 전조를 위해 미리 E음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마디부터 a minor로 전조 된다. <악보 25>

<악보 25> S’il est un charmant gazon, 9-12마디

9

quel.que fleur é - clo - - se, CM am ou l'on cueille à plei - ne main

smorz. sempre dolci. sempre dolci.

13마디의 가사 ‘lys’ ‘백합’, ‘chevreffeuille’ ‘인동초’에 테누토가 있으므로 음을 여유 있게 불러야 한다. 16마디부터 25마디는 ‘J’en veux faire le chemin, Oûton pied se pose’ ‘나는 당신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가사가 두 번 반복된다. 해당 마디는 오롯이 노래에 집중하기 위해 짧은 카덴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콘체르토의 카덴짜 시작 전 오케스트라의 tutti가 코드를 올리고 나면 그 이후에 솔리스트가 카덴짜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시어는 ‘con grazia’는 ‘우아하게’ 노래하라고 가리킨다. 성악가는 ‘당신의 걸음이 머물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다’는 서정적인 가사를 생각하며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로 노래한다. <악보 26>

<악보 26> S'il est un charmant gazon, 13-25마디

13

lys, chère - feuille et jasmin, j'en veux

con grazia

2 1 2 1 3 1 3 1 2 1 2 1 2

17 AM

fai - re le che - min où ton pied - se po - - - se, j'en veux

dolce p

21

fai - re le che - min où ton pied - se po - - - se.

f p dolce

### 3) Oh! quand je dors (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 (1) Oh! quand je dors 가사와 번역

가사	번역
<p>Oh! quand je dors, viens auprès de ma couche, Comme à Pétrarque apparaissait Laura. Et qu'en passant ton haleine me touche Soudain ma bouche s'entrouvrira! Sur mon front morne oùpeut être s'achève Un songe noir qui trop longtemps dura Que ton regard comme un astre s'élève Et soudain mon rêve rayonnera, rayonnera! Puis, sur ma lèvre oùvoltige une flamme Eclair d'amour que Dieu même épura Pose un baiser, et d'ange deviens femme Soudain mon âme s'éveillera, s'e veillera.</p> <p>Oh! Viens! Comme à Pétrarque apparaissait Laura!</p>	<p>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페트라르카가 로라에게 나타나듯이 나의 침실 곁으로 와주오 당신의 숨결이 나를 스치면 곧 나의 입술이 살짝 열릴 것이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어두운 꿈이 내 우울한 이마 위로 끝이 날 것이오 별과 같은 당신의 시선이 높이 솟아오르면 곧 나의 꿈은 빛을 발할 것이오. 빛을 발할 것이오! 그리고 나서, 나의 입술 위로 날아오르는 불꽃은 신이 직접 정화시킨 사랑으로 환해진다오. 입을 맞추면, 천사가 여인으로 화하고, 곧 나의 영혼은 눈을 뜰 것이오, 눈을 뜰 것이오.</p> <p>오, 오라! 페트라르카가 로라에게 나타난 것처럼.<sup>30)</sup></p>

30) 홍정현 역

## (2) Oh! quand je dors 악보 분석과 성악가적 해석

이 곡은 4/4박자, E Major 의 곡으로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나의 침실로 와달라는 가사를 노래하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이다. 형식면에서는 A,B,C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을 가진 이 곡은 나머지 세곡보다 일년 앞서서 리스트에 의해 수정, 편곡되었다. 위고는 페트라르크와 로라를 언급하며 페트라르크의 시들을 주제로 사용하였다. 1847년 리스트는 이 곡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하였고 리스트의 친구이자 제자인 피터 코르넬리우스(Peter Cornelius)는 이 곡을 독일어 가사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이는 ‘O komm im traum’이라는 제목으로 불린다.<sup>31)</sup> 피아노 반주부의 아르페지오가 곡의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리스트의 극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곡이다. 성악가는 꿈과 현실을 아우르는 환상적인 가사 표현을 위해 악상과 레가토를 충실히 지키도록 한다.

[도표7] Liszt, Oh! quand je dors 형식구조

형식	마디	조성	박자	빠르기
A	1-18	E	4/4	Andante 느리게
a-a'	19-28	E		
B	29-55	E-f#-F-E		
C a'-a''- coda	56-66	E		
	67-78	E		
	79-93	E		

31) 채은희 (Kimball, Carol) Song. 서울: 형설출판사, 2003 p.118



이 곡은 전주와 간주 부분이 minor tone으로 시작된다. 1마디에서 f# minor 로 시작되는 듯 하다 3마디에서 c# minor, 5마디 E Major 로 점차적으로 조성이 변화한다. 4마디 피아노 선율은 c# minor 와 E Major 의 공통화음으로 전조 된 것이며 이러한 조성의 변화는 현실과 꿈의 차이를 두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6마디의 Major와 이어지는 7마디의 minor로의 변화 또한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를 두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8마디부터 등장하는 아르페지오 반주 형태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 ‘pedal point 지속음’을 통해 곡의 진행감을 약화시키며 꿈속에 있는 듯한 곡의 몽환적인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악보 27>

<악보 27> Oh! quand je dors, 1-10마디

1 **Andante.**

Singstimme. Tenor.

Klavier.

f#m c#m E

dolce

6

*p*

Oh! quand je dors,

E

smorz.

pp sempre legato

una corda

arpeggio

Pedal point

21마디 ‘sempre dolciss 항상 부드럽게’ 의 성악 부분 모티브는 30마디 피아노 반주부에서 다시 언급된다. 반주부 페달과 아르페지오 사용은 꿈결같이 잔잔한 곡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악보 28>

<악보 28> Oh! quand je dors, 21-35마디

21 *sempre dolciss.*  
*et qu'en pas - sant ton ha - lei - ne me tou - che, soudain ma*

26 *pp*  
*bou - che s'entr'ou - vri - ra.*

31 *espressivo*  
*Sur mon front*

42마디 반주부는 ‘poco a poco piu di moto,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르 게, 더 생생하게’ 연주하라는 지시어를 가진다. 44마디부터 ‘acceler’와 ‘cresc’로 곡의 빠르기가 변화하며 F Major로 전조 된다. 가사의 ‘Que

ton regard comme un astre s'élève' '그리고 나서 내 입술 위로 날아오르는 불꽃은' 부분부터 반주형태가 변화하고 곡의 분위기가 전환된다. 이때 성악 부분의 감정도 악상과 함께 고조된다. 표현은 반복되는 가사 'rayonnera' '환해질 것이오'에서 f와 ff의 악상으로 가장 격정적이며 55마디에 이르러 Ne.6(Neapolitan 6화음)의 영향으로 화음의 성질이 변화되며 다시금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온다. <악보 2>

<악보 29> Oh! quand je dors, 41-55마디

41 *acceler. cresc.* *FM* *que*  
*trop longtemps du ra-* *poco a poco piu di moto* *que*  
*Rea* *Rea* *Rea* 반주형태 변화

45 *cresc.*  
*Rea* *Rea* *Rea*

50 *f* *ff* *riten.* *pp* *E Neapolitan 6*  
*tre corde* *Rea* *Rea* *Rea*

Lyrics: *ton re-gard comme un a- stre sé lé - ve sou-dain mon*  
*rè - ve ray-on-ne-ra, rayon - ne-ra!*

56마디의 조성은 E Major이다. 피아노 반주부의 지시어는 ‘stacc 짧고 날카롭게,’ ‘una corda 약음 페달 사용하여’ pp로 연주하라고 가리킨다. 반주에서는 2마디 단위 아르페지오로 펼침화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환상 속에 있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음악적 장치처럼 들린다. Pedal point의 사용으로 지속되는 베이스음에 의해 긴장감과 곡의 차분한 분위기가 함께 조성된다. 성악 부분의 ‘Puis sur ma lèvre où voltige une flamme’ ‘입을 맞추면 천사가 여인으로 화하고’의 가사는 악상 pp를 지켜 차분하게 노래해야 한다. 이 부분은 피아노 반주도 아르페지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반주와 성악이 조화롭게 들리도록 해야 한다. 성악가는 61마디 ‘damour’에서 고음으로 도약한 후 레가토하며 음을 길게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미리 준비해서 풍성한 소리로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30>

<악보 30> Oh! quand je dors, 56-63마디

56

*pp*

E

Puis sur ma lèvre où voltige une

*pp stacc.*

una corda

Pedal point

60

flamme é clair d'amour que

83마디의 성악 선율은 페르마타를 충분히 살린 뒤 ‘dolciss 부드럽게’, ‘morendo 점점 느리게’ 연주해야 한다. 88마디의 피아노 반주부는 C# Major 코드가 사용되며 이는 E의 대리 코드이다. 이 곡의 종지는 E Major이며, 이 코드는 확실하고 분명한 종지가 아닌데 이 또한 가사의 내용과 연관하여 화성적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83마디 ‘Viens!’에는 페르마타가 있다. 음가를 충실히 늘리면서 연주함과 동시에 ‘오라!’는 가사를 열정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도록 한다. 85마디 성악 부분 마지막 음정 G#이 14박에 이르는 긴 음가인 것을 유념해야 하며 피아노와 반주 모두 소리를 줄여 작게 연주한다. <악보 31>

<악보 31> Oh! quand je dors, 82-93마디

82

*p* *dolciss.* *morendo*

Oh viens! comme à Pé-trar-que ap-pa-rais-sait Lau-riten.

88

*ra!*

*C#M* *c#m* *E*

*PPP* *PPP*

#### 4) Enfant, si j'étais roi (내가 만약 왕이라면)

##### (1) Enfant, si j'étais roi 가사와 번역

가사	번역
<p>Enfant, si j'étais roi, je donnerais l'empire, Et mon char et mon septre, et mon peuple àgenoux, Et ma couronne d'or, et mes bains de porphyre Et mes foltttes àqui la mer ne peut suffire, Pour un regard, pour un regard de vous, Un regard de vous!.</p> <p>Si j'étais Dieu, la terra et l'air avec les ondes, Les anges, les démons courbés devant ma loi, Et le profond Chaos aux entrailles fécondes, L'éternité, l'espace, et les cieux et les mondes,</p> <p>Pour un baiser, pour un baiser de toi, Un baiser de toi, Un baiser de toi!</p>	<p>내 사랑, 만약 내가 왕이라면 나의 영토를 주련만, 나의 수레, 나의 왕권, 내 앞에 숙이는 백성들까지도, 금관과 반암석 옥조도 버릴 것이며, 바다조차 채울 수 없는 나의 파도들까지도 단 한번 당신의 눈길, 당신의 단 한 번의 눈길을 위해서라면.</p> <p>만약 내가 신이라면, 대지와 물결치는 대기, 내 범 앞에 고개 숙이는 천사들과 악마들, 또한 풍성한 마음속의 깊고 깊은 혼돈, 영원, 우주, 하늘과 세계를 주련만,</p> <p>단 한 번의 입맞춤, 그대의 단 한 번의 입맞춤을 위해서라면, 그대의 단 한 번의 입맞춤 그대의 단 한 번의 입맞춤을 위해서라면.<sup>32)</sup></p>

32) 홍정현 역

## (2) *Enfant, si j'étais roi* 악보 분석과 성악가적 해석

이 곡은 4/4박자에 A b Major 조성을 가진 곡으로 변화무쌍하게 전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형식은 A와 A'로 이루어져 있다. 전타음 (appoggiatura) 이 계속 사용되는 화려한 반주부와 경쾌한 느낌의 성악부가 조화를 이루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곡이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화자의 큰 사랑을 ‘내가 만일 왕이라면’ ‘내가 만일 신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낭만적인 곡이다. 리스트는 반주부의 전타음과 음형 확대를 통해 가사의 왕권, 우주, 세계, 하늘 등의 광활한 시어들을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성악가도 화려한 반주와 함께 다이내믹하게 곡을 표현하도록 한다.

[도표 8] Liszt, *Enfant, si j'étais roi* 형식구조

형식	마디	구성	박자	빠르기	
A a-b	1-11	A b -F	4/4	Quasi Allegro modertato 적당히 빠르게	
	12-30	F-A-A b			
A' a'-b'	31-40	A b -F			
	41-59	A b -f # -D-g- E b -E			
coda	60-65	A b			

이 곡의 지시어는 ‘Quasi Allegro modertato 적당히 빠르게’, ‘un

poco marcato 조금 각 음들을 강조하며 연주하라고 가리킨다. 이 곡은 A b Major 안에서 전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주는 매우 힘차고 규칙적이다.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조이고 조성 또한 ‘혼돈, 영원, 우주, 하늘, 세계’ 등의 가사를 표현할 때 잠시 minor를 차용하는 것 외에는 주로 Major 톤으로 이루어진다. 가사 ‘roi’ 는 ‘왕’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크레센도를 살려 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32>

<악보 32> Enfant, si j'étais roi, 1-8마디

1 **Quasi Allegro moderato.**

Singstimme.  
Tenor. *p*

*En - fant, si j'é. tais*

Klavier. *p un poco marcato*

5 *mf 전타음*

*roi, je don - ne - rais l'em - pi - re et mon*

26마디 성악 선율의 ‘pour un regard’ ‘단 한번 당신의 눈길’ 가사는 악상 ‘mezza voce’ ‘절반으로 소리를 줄여서’ 노래해야 한다. a tempo 부터는 피아노 음형의 확대를 통해 음악 전체의 기승전결이 강하게 부여된



다. 이 부분부터 음역대가 확장된다. 29마디의 단어 ‘regard’ ‘눈길’은 리타르단도 해 음을 여유 있게 처리해야 하고, 30마디에는 페르마타가 있다. 33마디 성악 선율은 f로 앞과 대비될 수 있도록 강하게 노래해야 한다. 34마디 가사 ‘Dieu’ 는 ‘신’이라는 뜻으로 반부주에 f와 크레센도가 있다. 두 번의 가정 중 앞의 ‘roi 왕’ 보다 의미가 더 확장된 ‘Dieu 신’의 의미를 생각하여 시어를 힘차게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 33>

<악보 33> Enfant, si j'étais roi, 25-34마디

41마디 피아노 반주부는 동형진행을 통해 긴박함을 줌과 동시에 옥타브 반음계적 진행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색채감을 부여한다. 이 부분에서 ‘혼돈, 영원, 우주, 하늘, 세계’ 등의 시어를 표현하기 위해 minor 조성이 차용되는데 이는 시어의 웅장한 느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성악

가도 화려한 반주와 함께 리스트의 표현들을 살려 다이내믹하게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34>

<악보 34> *Enfant, si j'étais roi*, 39-47마디

39

*mons cour-bés de-vant ma loi, un peu plus animé*

*cresc. f*

42

**FM** *et le profond cha-*

*mf. f*

45

*os aux en-trail-les fé-con-des,*

**f#m gm**

###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졸업연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악가의 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낭만주의 예술가곡이 가지고 있는 가사와 음악 간의 긴밀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곡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슈베르트는 괴테의 『서동시집』, 제 8편 《줄라이카의 서》에 실린 빌레머의 두 편의 시 <동풍>(Ostwind)과 <서풍>(Westwind)을 바탕으로 Suleika I 과 Suleika II 를 작곡하였다. ‘줄라이카’는 괴테와 그의 연인 빌레머가 주고받은 서신에서 사용하던 서로의 필명 ‘하템’ 과 ‘줄라이카’에서 비롯되었다.

Suleika I 은 연인을 만나러 가는 화자의 설레는 마음을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한다. 화자의 설렘, 황홀, 슬픔, 사랑, 충만함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반주 음형과 조성, 셈여림을 통해 다이내믹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곡에서 ‘바람’은 화자에게 ‘사랑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상이자 고마운 존재이다. 피아노는 바람의 다양한 움직임과 날아다니는 벌, 나비의 모습을 반주 음형으로 독특하게 묘사하며 곡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성악가는 통찰력을 가지고 시에 대한 슈베르트의 표현을 읽어내고 그에 어울리는 음색과 감정으로 유연하게 노래하도록 한다.

Suleika II 는 감정 표현의 절제가 돋보이는 곡으로 화자의 슬픔을 경쾌한 리듬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별의 고통을 노래하는 가사를 Major 톤의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로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화자의 슬픈 감정은 곡의 진행 중 minor를 짧게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절제된 표현 방식은 슬픔을 강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곡의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따라서 성악가는 슬픈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담담하게 가사를 표현하도록 한다.

Suleika I 과 Suleika II 는 공통적으로 ‘바람’이라는 매개를 사용해 연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점과 빌레머 부인이 쓴 시를 바탕으로 작

곡되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가지나, 동일하지 않은 화자의 상황과 감정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그려내었다. Suleika I의 리듬소재를 Suleika II에서도 사용하며 두 곡 간의 연결성을 주었고 빠르기 배열, 반주 음형, 조성 변화 등 음악 형식에서 차이를 두며 두 시의 상반된 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빅토르 위고 시에 곡을 붙인 리스트의 여섯 개의 가곡 중 네 개의 가곡은 “Comment, disaient-ils”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네), “S’il est un charmant gazon” (매혹적인 풀밭이 있다면), “Oh! quand je dors” (오! 내가 잠이 들었을 때), “Enfant, si j’étais roi”(내가 만약 왕이라면)로 구성된다.

Comment, disaient-ils은 대화체를 사용하는 연극적인 곡으로 남자가 질문하고 여자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이 곡은 남자의 질문을 스타카토를 통해 긴박하게 표현하고, 그에 대한 여자의 한마디 대답은 긴 선율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곡의 온화한 분위기와 걱정이 해소되는 해결의 느낌을 나타낸다. 성악가는 부드러운 도약과 여유 있는 끝음 처리로 그녀들의 해답을 강조하고 있는 작곡가의 표현을 살려 연주하도록 한다.

S’il est un charmant gazon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정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길과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화자의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한 곡이다. 이 곡의 잦은 조성 변화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고, 6/8박자가 우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끈다. 성악가는 리스트의 서정적이고 우아한 표현에 따라 맑은 음색으로 부드럽게 노래한다.

Oh! quand je dors는 페트라르카와 로라를 언급하며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나의 침실로 와달라는 가사를 노래하는 몽환적인 곡이다. 반주부의 아르페지오는 곡의 차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반주 형태가 변화되는 부분에서는 리스트의 극적인 음악 표현이 돋보인다. 성악가는 꿈과 현실을 아우르는 환상적인 가사를 악상과 레가토에 충실하여 열정적이고 아름답게 노래한다.

Enfant, si j’étais roi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화자의 큰 사랑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 ‘왕’과 ‘신’을 가정해 표현한 곡이다. 리스트는 반주부의 전타음과 음형 확대를 통해 가사의 왕권, 우주, 세계, 하늘 등의 광활한 시어들을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도록 웅장하게 표현했다. 성악가도 화려한 반주와 함께 다이내믹하게 연주하도록 한다.

리스트는 위의 네 곡에서 시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율의 동기를 바꾸기도 하고, 템포와 리듬, 조성에서 대담하고 잦은 변화를 주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피아노 반주에서는 오케스트라적인 음향 효과를 의도한 반주를 사용하며 오페라와 비슷한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이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리스트의 연주자적 면모를 잘 드러낸다. 또한 리스트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헝가리, 러시아 등의 다양한 언어로 가곡을 작곡하였으며 그 중 위고 시에 의한 네 개의 가곡에서는 프랑스 시어를 택하여 운율을 통일해 각 곡의 통일감을 주고 있다. 시의 내용은 네 곡 모두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리스트의 서정성과 드라마틱함, 우아함이 잘 드러난다. 특별히 반주와 성악이 조화롭게 들리도록 해야 하며 성악가는 클라이맥스로 가는 부분에서 반주와 함께 다양한 곡의 분위기를 열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낭만주의 음악의 전, 후기 대표 작곡가인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작품을 통해 두 작곡가의 음악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두 작곡가 모두 시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음악 형식을 선택했으며 아름다운 선율을 사용하여 시의 서정성을 부각시켰다. 조성, 리듬, 화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시에 내포된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 갔으며 피아노 반주부와 성악 선율의 대등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으로 음악의 풍성함을 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낭만주의 예술가곡을 연주하기 위해 성악가는 시의 의미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 깊이 있게 해석한 후, 작곡가가 의도하는 음악적 표현을 충실하게 따르며 연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민은기 외 2명. 『서양음악의 이해』.(서울:예술 출판사,2000),p.16
- 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에서 재즈까지, 2007, p.408
- 김미영. (1999). 피테의 리트미학. 음악이론연구, 4(0), 65-87
- 김소현. (2012). Victor Hugo의 시에 의한 Franz Liszt의 4개의 Mélodie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3-7
- 김수현. 「F. Schubert와 F. Mendelssohn의 줄라이카 가곡 비교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5-67
- 이영남. (2013). 시의 날개 위에 -피테와 음악.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126(0), 149-170.
- 이영남. 「시의 날개 위에 -피테와 음악」.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2013126(0), 149-170
- 이일구, 「시의 음악적 표현기법탐구: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1
- 정경량. (2002). 피테의 시와 음악. 피테연구, 14(0), 89-107.
- 조길자. (2007). 슈베르트의 피테가곡 『서동시집』 (West-Ostlicher Divan) 중 4편의 시에 의한 가곡 연구. 이화음악논집, 11(1), 119-148.
- 홍세원, 『서양음악사』, 연대출판부(2002), 434

조길자. 2006. 「괴테 시에 의한 슈베르트 가곡 연구: 『파우스트』를 중심으로」

채은희 (Kimball, Carol) Song. 서울: 형설출판사, 2003

Humphrey Searle, The Music of Liszt, 리스트의 음악세계, 김경임 역, 128-129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14, Macmillan Publishers, 852-857

Douglas, John, Liszt as a song composer vol.43. No.4, (New York : HATS Bulletin, 1987)

Merrick, Paul, Revolution and Religion in music of Liszt,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1987)

Cooper, Martin, Liszt as a songwriter, (Music and Letters, vol. 19, 1938)

John Douglas(1987), Franz Liszt as a song composer, NATS Bullerin, vol.43

## Abstract

# Analysis study of two songs by F.P. Schubert

(Goethe's poem: Op.14, Op.31) and

# Four songs by F. Liszt

(Hugo's poem: Op.276, Op.284, Op.282, Op.284)

Kang. Soo Yeon

Department of Music

Major in Voi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based on Johann Wolfgang von Goethe's poem "Comment, disaient-ils" (how, They say), "S'il est un charmant



gazon” (if there is a enchanting meadow), “Oh! quand je dors” (Oh! When I fell asleep) and “Enfant, si j’étais roi” (If I were a king), the composition of the works throug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is of each song were looked into.

Franz Schubert (1797–1828), who is called “king of the song”, composed more than 600 songs and made artistic songs, which take root as an independent music genre. In addition, he brought the emotions which diffused in poetry into music. In the 8th volume of the West-östlicher Divan, ‘Suleika Nameh’, which is based on Goethe’s correspondence with his lover Marianne von Willemer until his death, includes lots of poems. This thesis is analysis of Schubert’s two works, 「Suleika I」 (Op. 14, D. 720) & 「Suleika II」 (Op. 31, D. 717), from ‘Suleika Nameh’.

These two songs express the emotion of the speaker, like the excitement of going to meet a lover and the pain of detachment, through “wind”. Inside the music, the role of extended piano accompaniment, beautiful melody, form of the song according with the structure of the poem, arrangement of tempo, accompaniment sound type, tonality, and various harmony were used to express the dramatic and intense emotions contained in the poem.

Franz Liszt (1811–1886), a Hungarian composer, is the founder of modern piano technique and one of the greatest pianists. He composed about 400 piano pieces, arranged large-scale music such as orchestral music or opera, and composed about 80 songs in various languages. This thesis looked into four of the six songs which adapted Victor Hugo’s poems. Those are “Comment, disaient-ils” (how they say it), “S’il est un charmant gazon” (if there is a

charming meadow), “ Oh! quand je dors” (Oh! When I fell asleep) and “Enfant, si j'étais roi” (If I were a king). Those four songs with a unique structure give the unity to music by using French poetic words and have a common theme of love. Various forms are used to express the meaning of the lyrics clearly. Moreover, the fluid melody of the piano accompaniment, the tempo, the rhythm, the composition, and the changes in harmony are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Liszt's songs.

**Keyword : Schubert, Liszt, Goethe, Western Poems, Victor Hugo, romantic artist song**

**Student Number : 2020-21033**